

같이 보기

: 2022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

# 오래된 아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나누는 사랑의 나눔상자



하나의 상자 안에 담긴 어떤 물건들은 단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지라도 오랜 고통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고통을 위로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진폐노동자들을 위한 진폐재해자의 날을 앞두고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나눔상자를 전달해 진폐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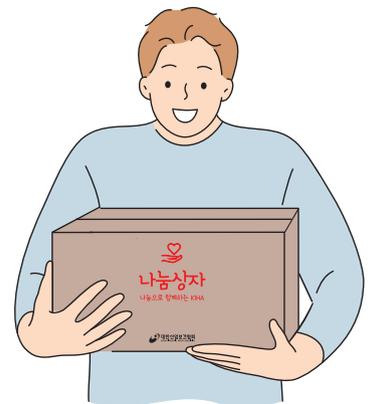




### 한마음 한뜻으로 만드는 나눔상자

지난 4월, 언제부터인가 대한산업보건협회 건물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 크고 작은 택배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삼푸와 수건, 휴지와 물티슈 처럼 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생필품부터 즉석밥과 라면, 즉석식품, 김 처럼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줄 식품들, 입을 즐겁게 해 줄 주전부리까지 종류와 크기가 다양한 여러 상품들이 담긴 택배들이 넓은 공간을 꽉 채웠다. 모두 진폐 환자들에게 전달할 나눔상자에 담길 물품들이다. 일상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일 것들로 심사숙고해 고른 것들로 나눔상자에 담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결전의 날 오후, 본부 각 부서에서 손길을 보태러 직원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백헌기 회장을 비롯해 이청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김홍갑 사업총괄이사, 배정석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까지 모두 앞장서서 소매를 걷고 각자 담당할 물품 앞에서 대기하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렸다. 누군가는 박스 조립을, 누군가는 생필품을, 또 누군가는 간식거리를 담고 테이프로 박스를 마감한 후에 다시 한쪽에 박스를 쌓기까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정에 인원수도 많아 자칫 동선이 꼬일 수도 있고,



##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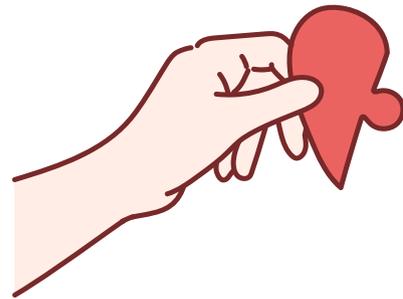
: 2022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

합이 맞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나눔상자 제작.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미루거나 물러섬 없이 각자 담당한 자리에서 든든하게 한몫하며 나눔상자 제작에 열을 올렸다. 그 덕분일까, 90개나 되는 나눔상자가 1시간 만에 모두 만들어졌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분담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나눔박스 제작. 하지만 소중한 업무 시간을 할애해 모두 함께 참여한 것은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단한 오후 시간에 진행됐음에도 나눔상자를 받게 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모두 즐겁게 함께할 수 있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나눔상자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협회 고유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협회와 하나은행이 각각 5:5의 비율로 부담한 1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일상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 의료구급함 등)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는 진행할 수 없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과 지원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재개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만큼은 임원부터 직원까지, 노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진행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 이 의의는 곧 나눔상자 제작 현장에서 찰떡 호흡으로 이어져 흡사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로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순서대로 척척 진행되어 능숙하게 상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임원들도 이날만큼은 소매를 걷어붙였고 덕분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나눔상자

4월 28일인 진폐재해자의 날을 앞둔 26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제작한 나눔상자가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달됐다.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인 경기도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병원과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를 통해 진폐환자 90명에게 나눔상자를 전달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기 회장과 정정희 노조위원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이범식 경인지역본부장 등 협회 관계자들과 안산병원의 임호영 병원장, 엄윤호 부원장, 그리고 진폐협회의 최관식 지회장이 참석했다. 금번 나눔상자가 진폐환자들에게 전달된 데에는 가장 오래된 직업병이자 현재진행형인 진폐증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환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백현기 회장은 “진폐노동자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 산재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늘려나가겠다”며 이번 나눔상자 전달에 대한 의의를 피력했다.



66

일상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일 것들로  
심사숙고해 고른  
것들로 나눔상자에  
담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99

66

협회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진폐증과 진폐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노동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99



진폐증은 고체상의 분진입자 흡입으로 발생하는 폐 질환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병이자 난치병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60~70년대 국가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탄광노동자들이 진폐증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고통받고 있다. 진폐증은 그 자체를 낮게 하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에 협회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진폐증과 진폐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노동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

